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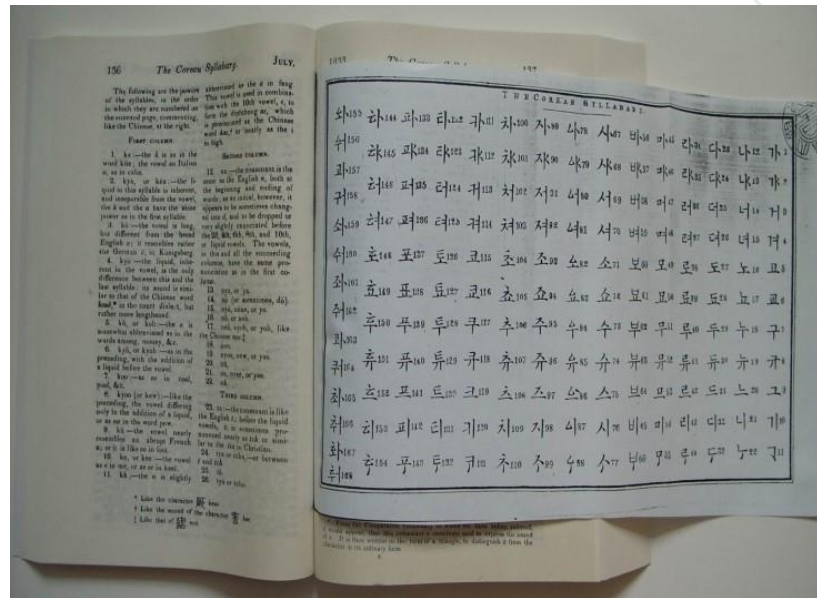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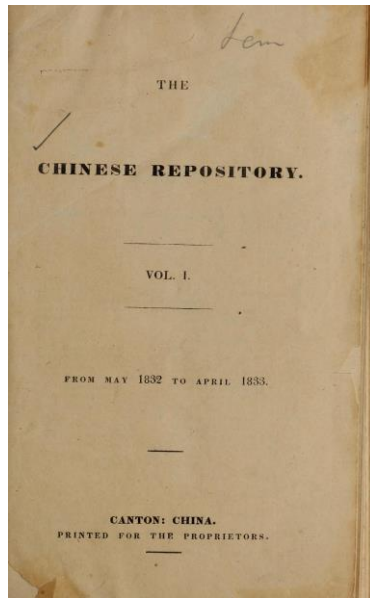


동서양의 문화 접촉과 The Chinese repository (1832-1851)

부경대학교 글로벌자율전공학부
이보고



1. 연구목적



서구 개신교 선교사들이 1832년부터 1851년까지 중국 대륙 내에서 발행한 최초 영문 월간지 *The Chinese Repository*(1832-1851)를 문화 접촉 지대(contact zone)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중층독해(thick reading)와 전체 문맥의 유기적 조망을 통해 19세기 전반 서구의 동아시아 인식 및 자기 인식의 형성과정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시선의 얽힘과 그것이 가지는 현재적 의미를 밝혀내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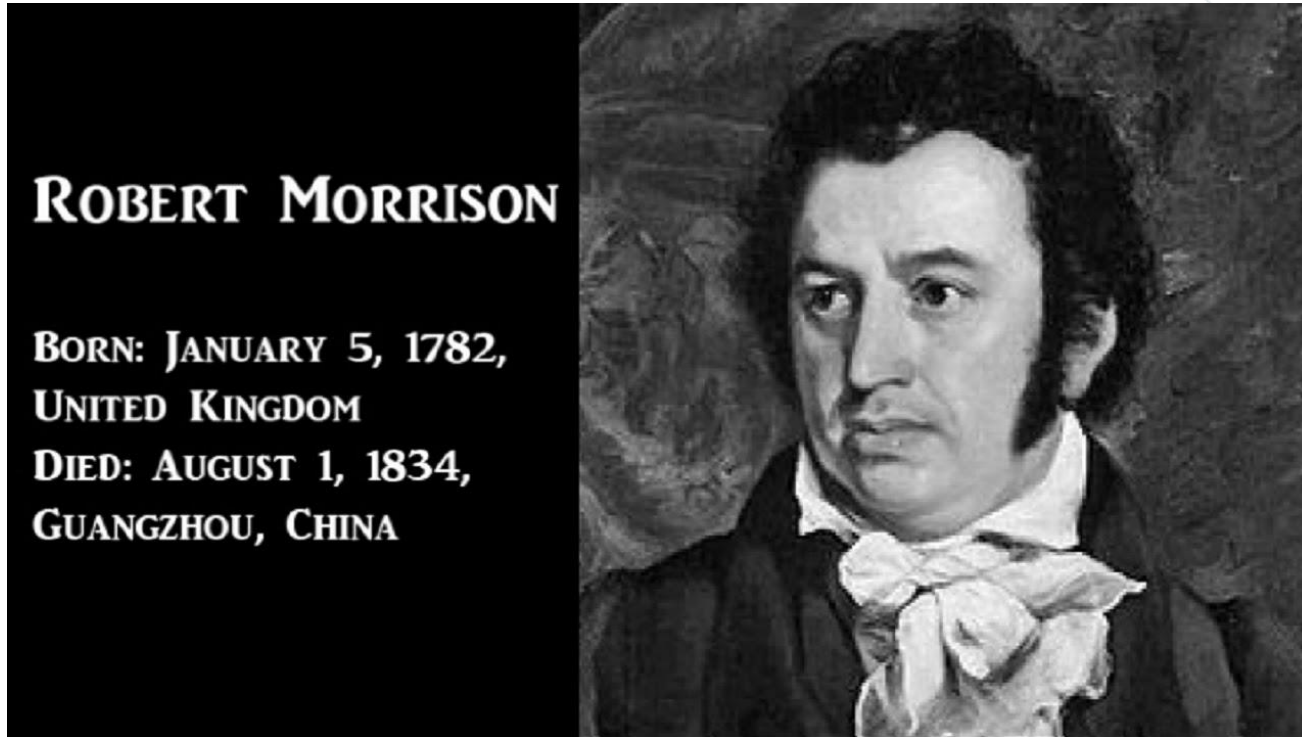
2. 연구방법



고아,
에서 볼
각축하

적 장소
입장이

2. 연구방법



기어츠가 제안한 **중층기술(thick description; Geertz, 1973)**의 방법/태도를 견지, 텍스트를 여러 시선이 교차하는 장으로 보면서 기술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복잡한 컨텍스트를 충분히 고려하며, 그것의 실천적 파급효과를 읽어 냄.

3. 연구내용

문헌비평, 역사연구, 문화연구, 사상연구, 개념사연구
등의 영역에 걸친 하위 연구 주제

- 1) 동서 언어문화 접촉의 장에서 드러나는 **시선의 교차와 정체성의 충돌**
- 2) 서구의 중국 관련 **지식네트워크와 학적 체계의 형성**
- 3) 예수회를 중심으로 구축된 16~18세기 **유럽 중국학 유산에 대한 비판과 계승**

3. 연구내용

1) 동서 언어문화 접촉의 장에서 드러나는 **시선의 교차와 정체성의 충돌**

- 동서 언어문화 접촉의 장(場)으로서의 *The Chinese Repository*

: 당시 개신교 선교사가 가지고 있던 중국 언어문화에 대한 소양과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 및 서구와 동아시아의 주요 문화 가치 개념에 대한 비교 속에서 양측 문명을 바라보는 시선의 교차 탐구

- *The Chinese Repository*에서 드러나는 시선의 교차와 정체성의 충돌

: 동남아시아와 중국 남동부 주요 접촉지대에서 활동했던 서구인들이 입장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동아시아/중국의 상을 구성하는 데서 드러나는 서구 주체의 다성성, 내부 시선의 교차, 담론 객체와의 상호 매개성 고찰

3. 연구내용

2) 서구의 중국 관련 지식네트워크와 학적 체계의 형성

- *The Chinese Repository*를 포함한 접촉지대의 간행물이 서구의 매체와 지식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양상
- *The Chinese Repository* 등 동남아시아와 광저우에서 발행된 간행물이 유럽과 미국의 서구매체들과 서로 참조하고 발췌·인용하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중서의 상호재현 양상 조명
- *The Chinese Repository*가 20세기 서구 중국관 및 관련 학제 형성에 끼친 영향
- *The Chinese Repository*에 실린 중국의 학적 체계, 교육 체계에 관한 글들을 정리해 분석하고, 그러한 체계가 이후 영미 아카데미에 접목되고 흡수된 양상 고찰

3. 연구내용

3) 예수회를 중심으로 구축된

16~18세기 유럽 중국학 유산에 대한 비판과 계승

- *The Chinese Repository*에 나타나는 선교사-동아시아학의 성격 및 학적 권위에 대한 자기주장
- 19세기 전반 개신교 선교사들의 동아시아 연구가 16~18세기의 예수회 선교사들의 유산을 어떻게 수용하고 비판하는지,
- 아울러 동시대 외교관, 군인, 상인들에 의해 표방된 중국 관련 지식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학적 권위를 자처하게 되는지 규명

3. 연구내용

4) The Chinese Repository에 나타난 **중국어 이해에 관한 연구 및 기타 분야**

- *The Chinese Repository*에 실린 중국어의 문법과 어휘에 관한 글들을 중심으로 19세기 서양의 중국어 이해를 검토하고 서양 중국학 성립과 *The Chinese Repository*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그것이 개신교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근대적 중국어 사전의 편찬과는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분석
- 접촉 지대의 잡지들에 의한 동서양 지식과 문화, 윤리 사상 매개의 양상
- *The Chinese Repository*의 편집진에 의해 선별 보도된 사건, 사고, 논평 등에 담긴 관점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지식인과 지적 전통, 문화 방면의 내용들에 어떤 시선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고찰

4. 연구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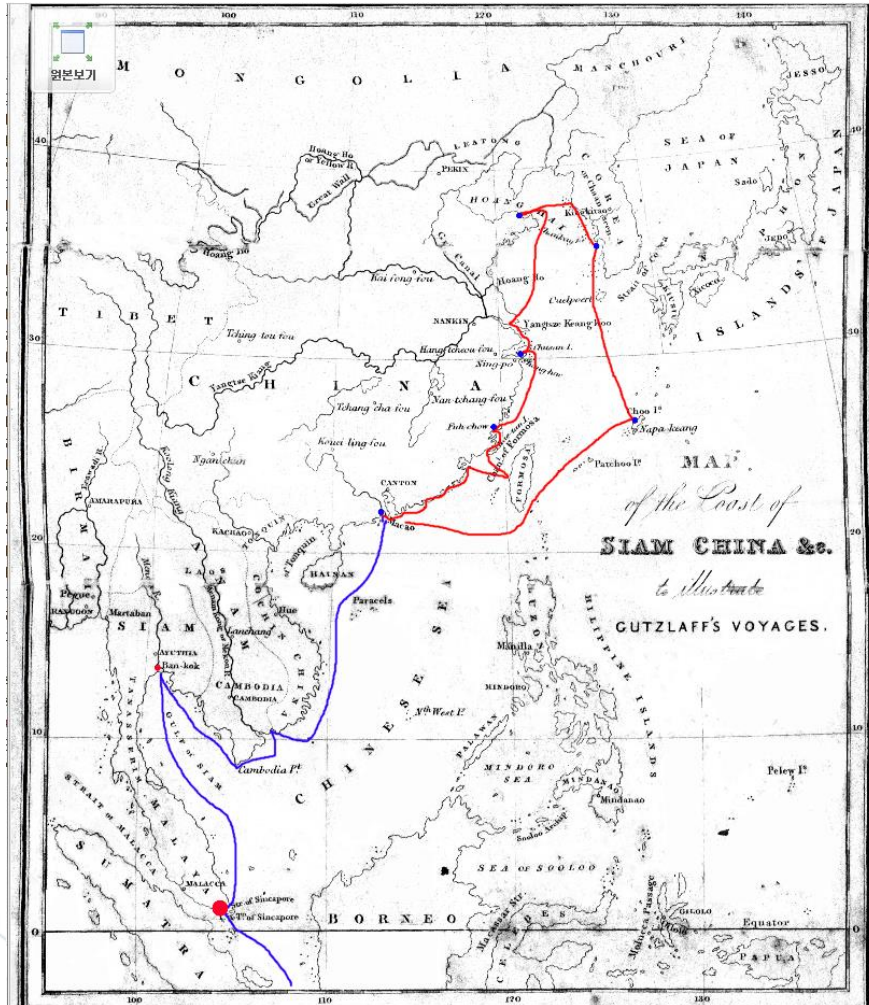


연구사례 논문제목

<귀츨라프의 중국연안 탐
사기>로 통해 본
문화 접촉지대의 횡단자들

4. 연구사례

1. 서론 : “공평무사한 기록”으로서의 근대적 여행기에 대하여



“중국 해안을 따라 만주 타타르까지 갔던 **귀츨라프**의 여행에 담긴 모든 상황들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좋아하거나 좋아해왔던 것들과 다를 수 있으며, 비평가들의 취향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나만의 미천한 견해로는, 여행기는 작가의 관찰 하에, 일어난 일과 보여 지는 일들을 매우 공정하고 풍부하며 공평무사하게 기록해야만 하는 것이다.”

4. 연구사례

2. 본론: 「귀츨라프의 중국연안 탐사기」再讀

2.1. 지식을 위한 여정과 그 기록들

2.2. 소책자를 읽고 만난 정크선들

2.3. 중국의 동부 연안 항해 중 이(異)문명 간 대화의 방식

4. 연구사례

2.1. 지식을 위한 여정과 기록들 : *The Chinese Repository*의 개척자들

“본 잡지의 목표 중 하나는 그래서 중국에서 일어난 변화들과 그러한 변화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주목하고, 지금까지 무엇이 사실이고 사실이 아닌지 최대한 구별하기 위해 중국에 관한 외국 문헌들을 검토하는 것이다. 많은 고서들은 귀중한 기록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는 반면, 재발간을 망설이게 만들 만큼 가치 없는 기록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현대 저술가들도 항상 그들이 기술들이 명확하거나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인구에 관한 설명에서 중국 인구는 2천만에서 불가사의한 숫자인 3억 3천 3백만까지 달라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4. 연구사례

2.2. 소책자를 싣고 만난 정크선들 : 세 차례에 걸친 귀츨라프의 중국 동부해안 여정



“첫 번째 여정을 위해 그는 1831년 6월 3일 방콕에서 정크선에 승선했던 바 있다. 당시 그는 11월에 만주(滿洲) 타타르 지역(Manchou Tartary)³⁾에 도달했고 12월 13일에 마카오로 귀환했다. 두 번째 여정은 이듬해인 1832년 2월 26일에 시작해서 산둥(山東, Shantung)으로 향하는 길에 푸젠(福建, Fuhkeën)과 저장(浙江, Chekeäng)의 몇 군데를 거쳤으며, 산둥에서 조선(Corea)으로 건너갔고 류큐 열도(Lewchew archipelago)를 거쳐 9월 4일에 마카오로 귀환했다.”

4. 연구사례

2.2. 소책자를 싣고 만난 정크선들 : 세 차례에 걸친 귀츨라프의 중국 동부해안 여행

"... 세 번째로 그는 지난 10월 20일에 출항해 올해, 즉 1833년 4월 29일에 돌아왔다. 이 마지막 여행은 사람들과의 접촉과 관찰의 기회라는 측면에서 지난 두 차례 여행을 크게 넘어서는 성과를 보였다. 일지는 비록 간략하기는 하지만 중국 사람들에게 "양이(洋夷, foreign barbarians)"가 결코 달갑지 않은 방문자가 아니라는 풍성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4. 연구사례

2.2. 소책자를 읽고 만난 정크선들 : 세 차례에 걸친 귀츨라프의 중국 동부해안 여정



"1832년 10월 20일 사람들과 여러 차례 의논한 뒤 여전히 마음에 갈등을 안은 채로 나는 W. 선장이 지휘하며 A. R. 씨가 화물관리인(supercargo)으로 있는 실프(Sylph)호에 승선했다. 실프호는 선원을 제대로 갖추었으며 무장을 든든히 한 고속 선박이었는데 목적지인 텐진(天津, Teëntsin)과 만주타타르지역에 도달하기까지 강한 몬순 북동풍에 맞서야 했으며 난폭한 날씨를 견뎌야 했다."

4. 연구사례

2.2. 소책자를 싣고 만난 정크선들 : 세 차례에 걸친 귀츨라프의 중국 동부해안 여정

"... 마카오 근해를 떠나자마자 우리는 일정 내내 바람과 조류와 싸워 나가야 했다. 비와 거대한 파도를 동반한 무시무시한 강풍이 해안을 따라 며칠씩 우리를 몰아냈는데 우리 범선을 거의 파괴해 침몰시킬 지경이었다. 하지만 저 높이 계시는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종종 바다 깊이 집어 삼켜졌지만 그의 전능하신 손이 가라앉는 우리 선박을 들어 올려주셨다. 라스카르(Lascar) 한 명만이 목숨을 잃었다."



4. 연구사례

2.2. 소책자를 싣고 만난 정크선들 : 세 차례에 걸친 귀츨라프의 중국 동부해안 여정

“12월 3일, 우리 배는 안팎으로 온통 단단한 얼음으로 뒤덮였다. 몇 시간 동안 애쓰는 끝에 우리는 닻을 끌어 올리는데 성공했으며 이 암울한 지역과 서둘러 작별했다. 동즈커우만으로 다시 진입하면서 우리는 닻을 내리고 있는 많은 수의 정크 선들을 볼 수 있었다. 친절 한 현지인들이 우리를 불러 세웠고, 이들은 관리들이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았던 식량과 연료를 공급해 주었다. 지배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우리를 더 친근하게 대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 닿는 데까지 우리 요청에 응해주었으며 신뢰해도 좋을 만 하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4. 연구사례

2.2. 소책자를 읽고 만난 정크선들 : 세 차례에 걸친 귀츨라프의 중국

동부해안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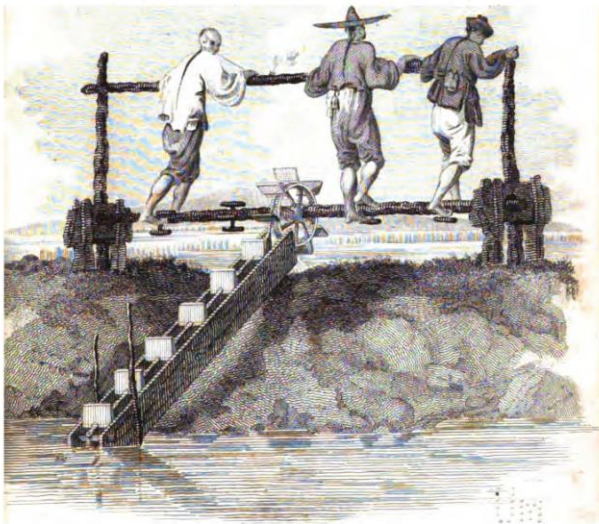
"... 이곳에는 그리스도교 사업을 펼치기 좋은 넓은 장(場)이 마련되어 있다. 주민들은 건실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으며 남아시아에 만연한 저열한 미신으로부터도 자유롭다. 비록 작은 숲속이나 언덕 곳곳에 우상과 형상들이 들어차 있었으며, 모든 고지는 사원으로 치장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은 미신의 절대적인 노예는 아니었다. 그들의 습속과 태도를 보면 우리의 농민들과도 비슷했다. 그들의 농장 가운데 어떤 곳들은 매우 잘 정돈되어 있었으며 어느 곳



4. 연구사례

2.2. 소책자를 읽고 만난 정크선들 : 세 차례에 걸친 귀츨라프의 중국 동부해안 여정

CHINESE CHAIN-PUMP.



Alexander del.

Jansson sculp.

Pub. Aug. 18, 1797, by J. Stockdale, Piccadilly.

"... 우리가 방문한 가이저우는 내륙으로 10마일 정도 들어가 있는 데,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인구밀도가 매우 높다. 이곳은 광범위한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지만 집들은 나지막했고 허술하게 지어져 있었다.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이주민들(Chinese colonists)은 매우 근면한 반면, 만주인들(the Tartars)은 대충 편안하게 살면서 정부의 수당을 받아 누리고 있다. 나는 만주 타타르 지역이 선교 사업을 위한 매우 희망적인 장이라고 보며 곧 어느 선교 단체에서든 주목해 주길 겸허히 희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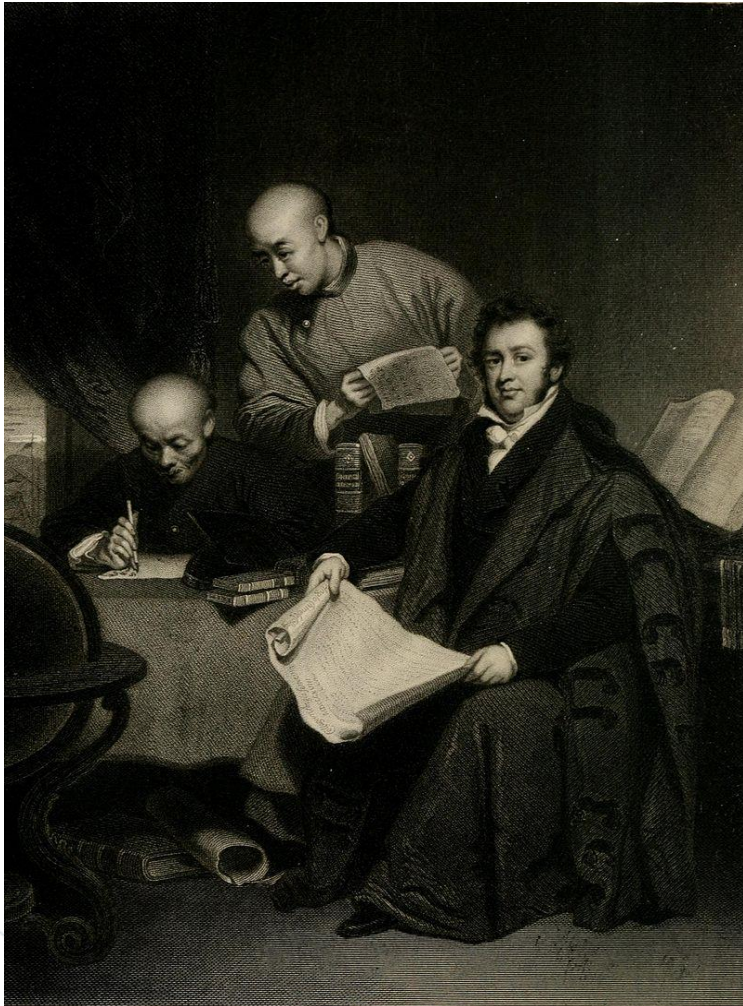
4. 연구사례

2.3. 중국의 동부 연안 항해 중 이 (異)문화 간 대화의 방식

“(1833년) 1월 14일, 우리는 정박지를 옮겨 어느 섬에 닻을 내리게 되었다. 배를 보고 자 하는 호기심은 이전에 정박했던 곳에서 보다 이곳에서 훨씬 대단했다. (.....) 승려들은 그리스도교 서적 몇 권을 손에 넣고자 오랫동안 갈망해 왔는데, 얻지 못하게 되자 실망에 차서 거의 울려고 했다. 나는 앞서 맞은 편 해안에 내렸는데, 내 손에서 책을 다 받아갈 때까지 줄라대기를 멈추지 않는 군중에게 둘러싸였다. 읽지 못하는 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작은 소책자 한 권일지라도 제대로 읽혀 제 몫을 할 것이라는 근거 있는 희망을 품어도 좋을 터이다. 우리들은 현지인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충분히 누렸다.”

4. 연구사례

2.3. 중국의 동부 연안 항해 중 이 (異)문명 간 대화의 방식



"... 지성과 정성을 합해, 그들은 자신의 우정을 표하거나 구체적인 질문을 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선교 사역을 위해 이 얼마나 좋은 장(場)인지! 그들의 마음은 진리를 영접하는 데 열려 있으며, 그들의 문은 진리를 전하러 온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열려 있다. 우리는 이 지역들로의 문호가 곧 활짝 열어젖혀질 것이라고, (가장 비뚤어진 제도의 모든 제한 법규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느님의 지혜로우신 다스림을 겸허히 믿는다."

4. 연구사례

2.3. 중국의 동부 연안 항해 중 이 (異)문명 간 대화의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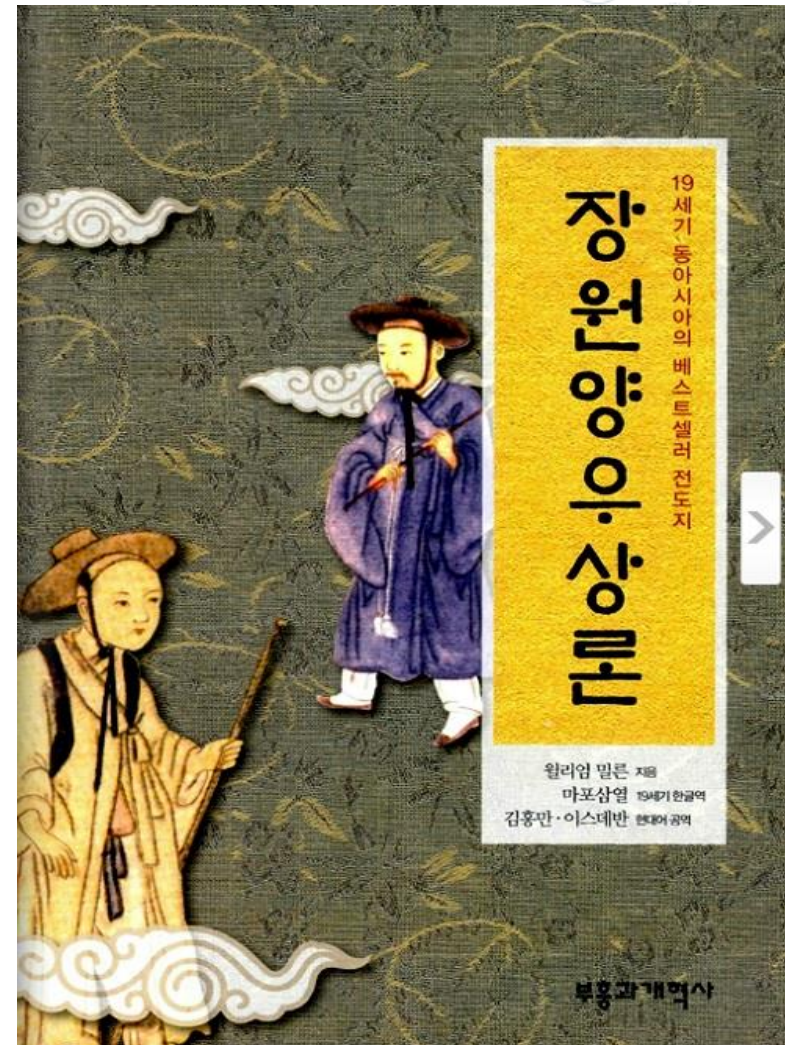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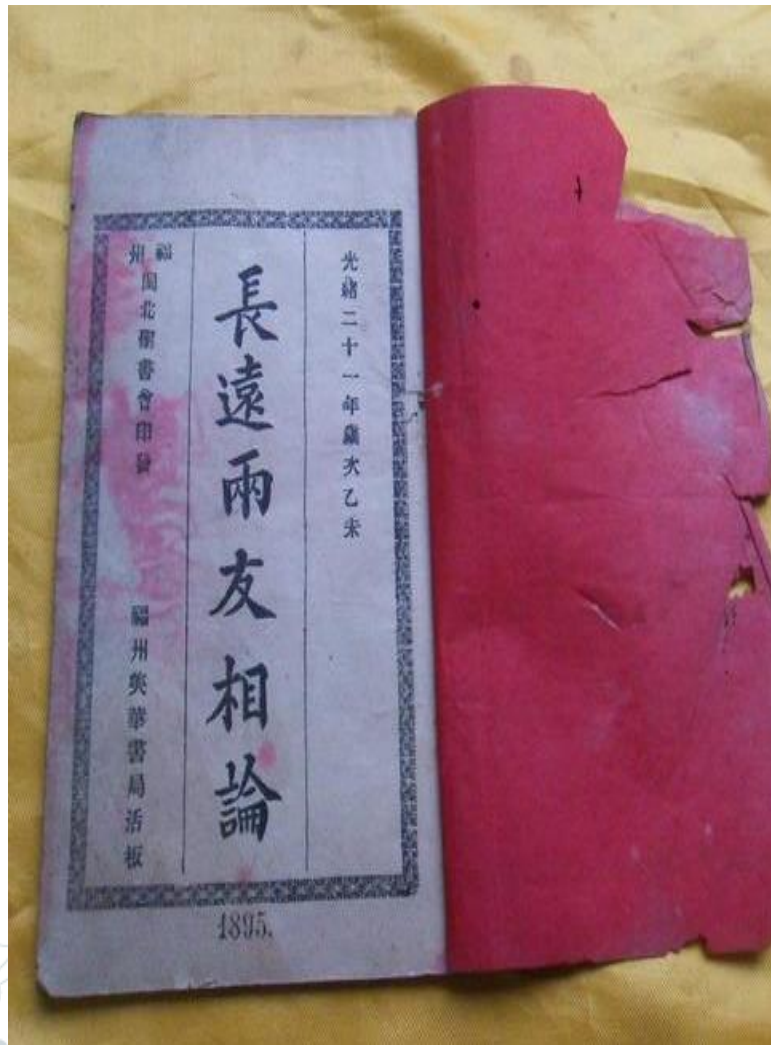
“멀리서 봤을 때 섬은 황량해 사람이 살기에 적합치 않을 것 같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근사한 건물들과 반짝거리는 커다란 돛이 보였다. 아래로는 거품 이는 파도가 부딪히는 절벽 위에 지어진 사원은 우리에게 이곳 주민들의 비범함에 관해 얼마간의 정보를 제공했는데, 우상숭배의 잔치를 벌이기 위해 가장 매력적인 장소를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수풀 속에 자리 잡은 커다란 건물을 살펴보는데 열중하고 있을 무렵, 우리 배의 색다른 모습에 끌려 바닷가를 따라 걸어오는 불교 승려 몇을 발견했다. 우리가 정박하자마자 흔한 차림에 매우 지저분한 또 다른 무리의 승려들이 송경(誦經)을 하며 우리를 향해 급히 다가왔다. **책이 건네지자 이들은 “부처님을 찬미합니다.”하고 외치며 내가 가지고 있던 책 모두를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갔다.”**

4. 연구사례

2.3. 중국의 동부 연안 항해 중 이 (異)문명 간 대화의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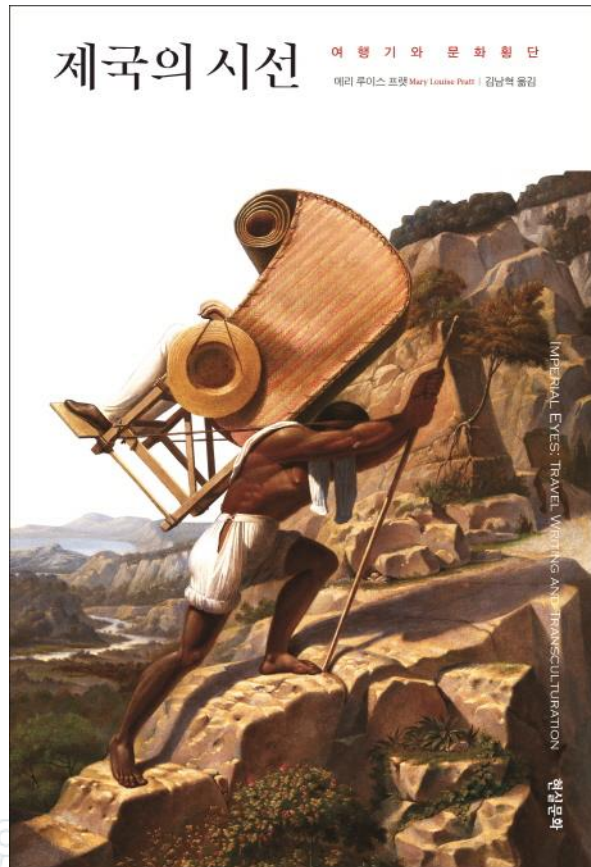
"... 그리고서 우리는 수목과 대나무로 둘러싸인 큰 사원으로 올라갔다. 우아한 통로와 웅장한 대문은 우리를 길게 늘어선 병사들의 막사 비슷한 승려들 숙소 건물들로 둘러싸인 넓은 마당으로 이끌었다. 여기에 들어서자 부처와 그의 제자들, 자비의 여신인 관음의 상을 비롯해 갖은 기괴한 형상의 우상들이 널찍하고 잘 장식된 큰 방들과 함께 이국에서 온 관광객에게 인상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다. 이처럼 위대한 민족이 혐오스러운 우상숭배의 참담한 지배하에 놓여 있다는 데 대해 선교사로서 어떤 감회를 가져야 할까? 이곳을 거닐며 아테네에서 사원들 사이를 지나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쳐진 제단 하나를 보았던 바울로가 떠올랐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우리를 쳐다보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그 가운데 다수 지적인 이들은 우리가 나누어준 책을 유심히 봤다. 우리가 나누어준 책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것은 그리스도교도 장(張)씨와 무지한 이교도 원(遠)씨 사이의 대화를 기록한 책이다. 이 작품은 애도해 마지않는 고(故) 밀른 박사의 것으로, 매우 정확하며 올바른 주장을 담고 있으며 내내 중국인 독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책이었다.**"

장원양우상론(張遠兩友相論)



4. 연구사례

3. 결론 : 문명적 대화로서의 <귀츨라프의 중국연안 탐사기>



... 일반적으로 식민지나 반식민지에 대한 여행기는 “유럽의 독자들에게 일종의 소유라는 감각, 그러니까 탐험되고 침략되고 투자되고 식민화되고 있는 세계의 저 먼 지역을 소유하고 명명할 권리와 그것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감각을 심어줬던 것이 사실이다.” 그 책들은 호기심, 모험심, 흥분, 심지어 유럽의 팽창주의에 대한 뜨거운 도덕적 품성을 자극했다. 그것들은 유럽 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구적 차원의 기획(planetary project)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제공하는 주요한 장치 중 하나였다. 요컨대 여행 서적은 제국의 내부 주체(domestic subject)를 생산하는 주요 장치였다.”

4. 연구사례

3. 결론 : 문명적 대화로서의 <귀츨라프의 중국연안 탐사기>

종교를 비롯한 현지 사회에 대한 지식의 확대가 애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국가적 확장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에만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접촉 지대인으로서의 횡단적 일상과 그에 따른 지식 체계의 심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선교사들은 일면 서구 유럽 기독교 문명의 선봉 역할도 했지만, 반면 접촉지대에서 생활하는 월경인(越境人)이라는 정체성, 그래서 대상과 호흡을 같이 해야만 하는 위상을 동시에 구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중적인 정체성과 위상은 그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각국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그 시선의 복합성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일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으로서 자신들 문명의 근대적 혹은 기독교적 지식을 전파하고자 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현지에서의 지식과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장해서 기존 유럽의 대(對) 동아시아 지식체계에 더욱 반성적이며 성찰적인 시선과 자극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했다.

동양과 서양의 경계에서 중국을 읽다

잡지 『차이니스 레포지터리』에
나타난 문화 접촉

민정기 외 저 · 편역



CHINESE REPOSITORY.





Thanks!

감사합니다

부경대학교 글로벌자율전공학부

이보고

